

장로 10명 중 8명, ‘장로임기제’ 찬성!

교회의 ‘장로’는 본래 장로회 교단에서 사제(Presbyter)의 의미의 직책명이었으나 한국에서 연장자, 원로의 뜻을 가진 ‘장로’(Elder)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평신도의 대표로서 목사를 도와 교회의 치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일하는 직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섬기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들이 받는 귀한 직분이다 보니 역할에 대한 부담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한국장로신문사’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예장 통합 교단 장로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로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장로 10명 중 8명은 교회의 비전과 교인/담임 목사와의 갈등 등으로 ‘장로 사역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변 장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다. 장로 관련 제도 중 ‘장로 임기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82%)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장로 한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견제하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번 <넘버즈 204호>에서는 한국교회 내 장로들의 교회생활과 신앙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장로 신앙의식 및 생활 조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예장 통합 교단 장로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휴대폰 문자로 URL 발송)
표본 규모	총 1,074명(유효 표본) - 시무장로 850명(79.1%) - 은퇴/원로장로 224명(20.9%)
표본 추출 방법	장로 유형별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04월 13일 ~ 05월 02일(20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장로신문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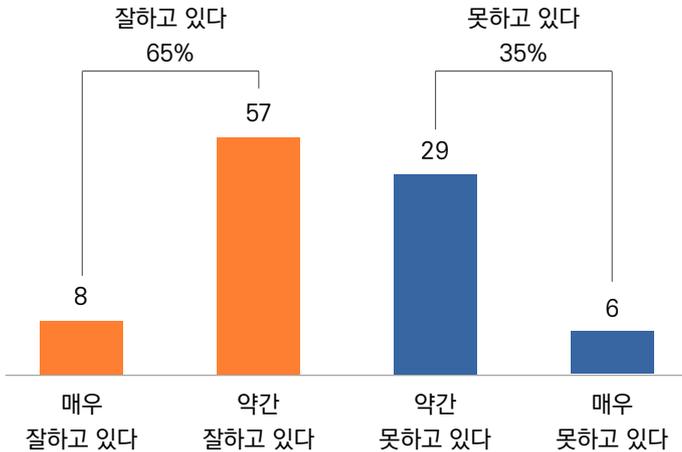
01

[장로 인식/평가]

장로 3명 중 2명, 본인의 장로직 수행 '잘하고 있다' 평가!

- ▶ 시무장로 본인에게 장로직 수행에 대해 평가토록 한 결과, '잘하고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이 장로 3명 중 2명 정도(65%)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못하고 있다'(매우+약간)는 평가는 3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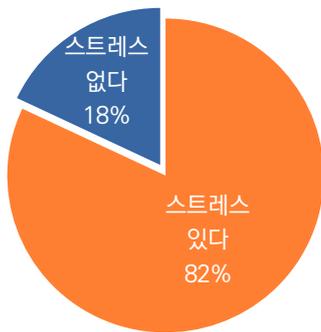
[그림] 본인의 장로직 수행 평가(시무장로, %)



◎ 장로 대부분, 장로 사역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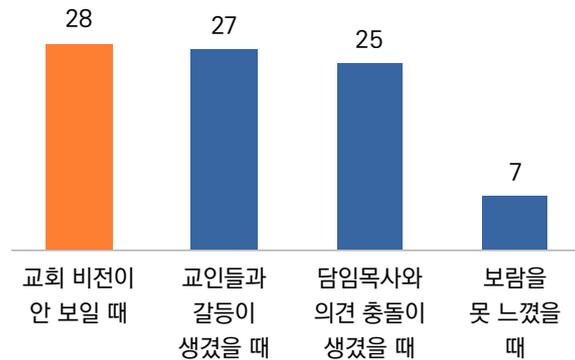
- ▶ 시무장로들이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장로 10명 중 8명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해 장로 대부분이 사역 감당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장로 사역 시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으로는 '교회 비전이 안 보일 때' 28%, '교인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27%,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25%로 상황과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장로 사역 시 스트레스 정도(시무장로, '매우+어느 정도' 비율*)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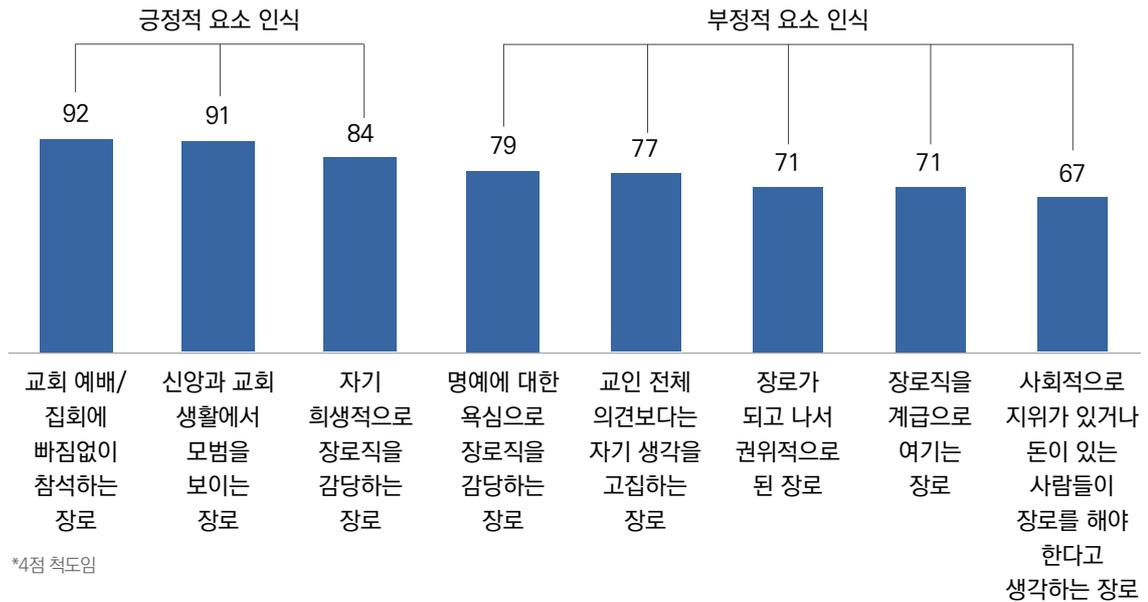
[그림] 장로 사역 시 스트레스 상황(직분 스트레스가 있는 시무장로, 상위 4위, %)



◎ 주변에 '신앙 모범 장로있다' 91% vs '명예 욕심있는 장로있다' 79%

- ▶ 장로의 몇 가지 유형을 나열하고, 주변에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장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 ▶ 대다수의 장로들은 주변에 '교회 예배/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장로'와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장로'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동료 장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장로직을 감당하고'(79%), '교인 전체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장로'(77%)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동의율 또한 높게 응답돼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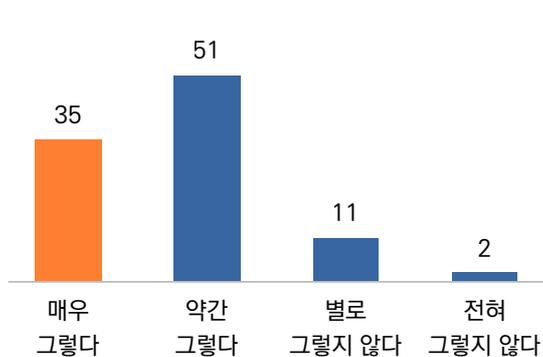
[그림] 주변에 있는 장로 유형 (시무장로, '매우+약간'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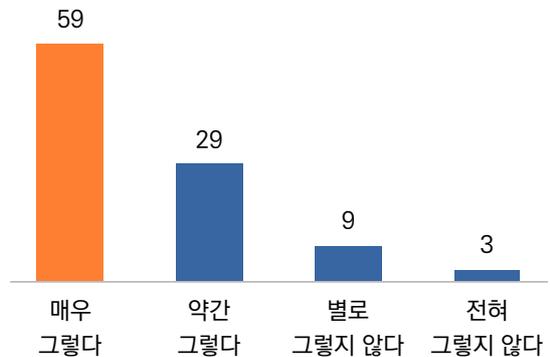
◎ 교회 정책 결정 시, 교인 의견 반영 '매우 그렇다' 35%에 그쳐!

- ▶ 장로의 의견 수렴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각각 '장로들의 교인 의견 수렴 정도'와 '교회 당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정도'에 대해 시무장로 스스로 평가토록 했다.
- ▶ 그 결과, '장로들이 전체 교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교회 정책을 결정한다'의 '매우 그렇다' 비율은 35%로 '교회 당회가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의 59%보다 낮았다. 시무장로 3명 중 1명 정도만이 교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장로의 교인 의견 수렴 정도 (시무장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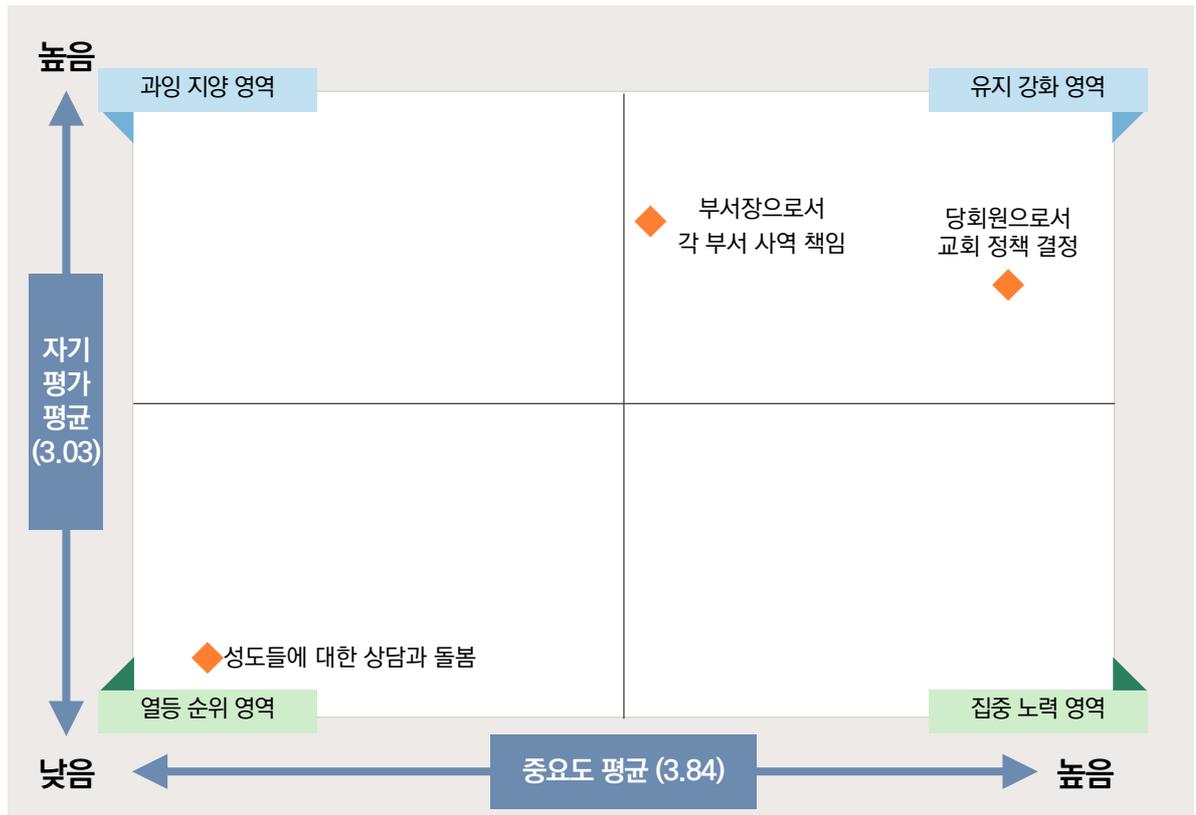
[그림] 당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정도 (시무장로, %)



◎ 장로 사역 중 강화 영역, '교회 정책 결정 역할'!

- ▶ 장로의 대표적인 3가지 사역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와 사역 평가를 물었다. 중요도는 '교회 정책 결정' > '각 부서 사역 책임' >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 순으로 '당회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고, 자기 평가는 '각 부서 사역 책임' > '교회 정책 결정' >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 순으로 나타나 '부서장' 역할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 ▶ 장로 사역 중요도와 수행 평가를 교차하여 분석해보면(IPA*분석), '교회 정책 결정'과 '각 부서 사역'은 현재의 노력을 강화하는 선에서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은 중요도와 현재 수행 평가 모두 낮아, 성도 돌봄 역할을 장로의 역할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장로 사역별 평가* (시무장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실행도 분석' 으로서 어떤 행동 노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임.
 **자기평가 '매우 잘하고 있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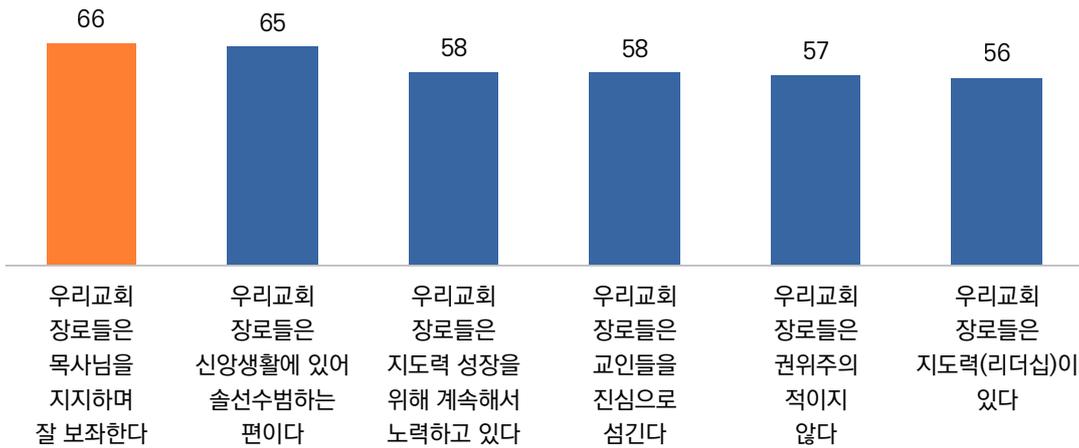
[표] 사역별 장로 역할 중요도/평가

구분	당회원으로 교회 정책 결정	부서장으로서 각 부서 사역 책임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
장로 역할 '매우 중요하다'	92%	87%	79%
장로로서 '매우 잘하고 있다'	27%	31%	16%

◎ 교인 40%는 소속교회 장로 지지하지 않음!

- ▶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장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최근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23.06)-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성도들이(교회출석자) 생각하는 장로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 ▶ '목사님을 지지하며 잘 보좌한다'가 '그렇다' 비율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신앙생활에 있어 솔선수범한다' 65%, '지도력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58% 순이었다. 전체 질문 항목에서 10명 중 6명 정도 비율로 장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역으로, 교인 40%정도는 소속교회 장로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림] 현 교회 장로 활동 평가 (교회 출석 평신도, 장로제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장로가 있는 교회 출석자 중 장로 제외 개신교인 1,189명, 온라인조사, 2023.01.)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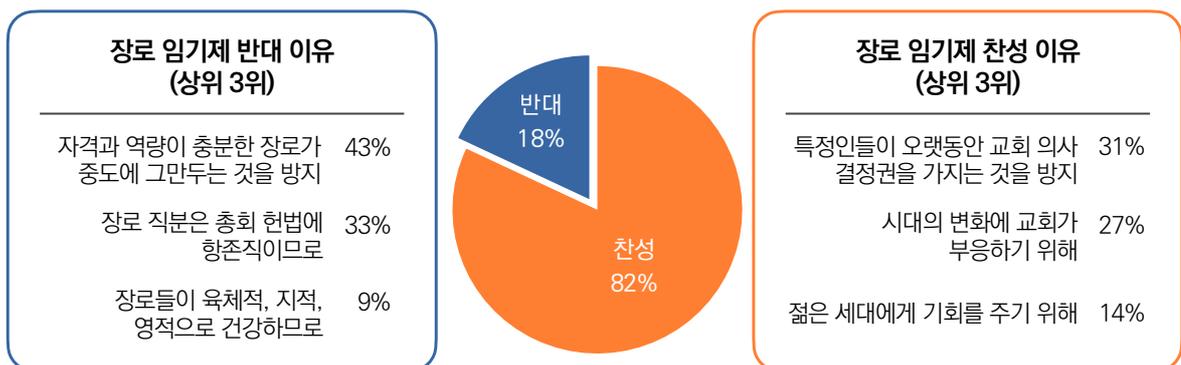
02

[장로 관련 제도]

장로 10명 중 8명, '장로 임기제' 찬성!

- ▶ 장로 임기제란 '임기를 정해서 시무하고 임기가 끝나면 시무장로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장로 임기제'에 대한 시무장로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 ▶ '찬성' 82%, '반대' 18%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장로 임기제 찬성 이유로는 '특정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31%) 의견을, 반대로 '장로 임기제 반대 이유'는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장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43%)을 각각 1위로 꼽았다. 일반 정치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독점 방지'와 '개인의 역량 발휘 보장'이란 측면이 충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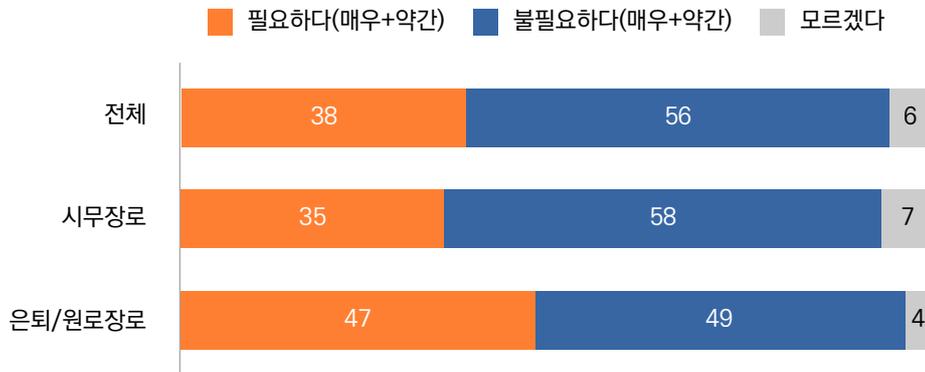
[그림] 장로 임기제에 대한 의견 (시무장로)



◎ 원로목사/원로장로 제도, 시무장로 그룹이 은퇴/원로장로 그룹보다 불필요 의견 높아

- ▶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고 정년이 되거나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가 일정한 예우를 하는 제도인 '원로 목사 제도'와 '원로 장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시무장로 그룹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은퇴/원로장로 그룹은 필요와 불필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림] 원로 목사/원로 장로 제도에 대한 의견 (장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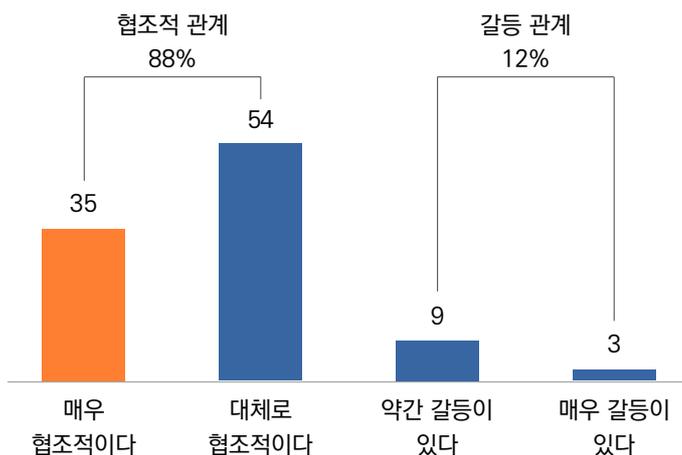


03

[담임목사와의 관계] 장로와 담임목사, '매우 협조적인 관계' 35%에 그쳐!

- ▶ 시무장로들에게 '담임목사와 장로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장로 대부분(88%)은 '협조적이다'(매우+대체로)라고 인식했고, '매우 협조적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장로 3명 중 1명 정도만 담임목사와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이 있다'(매우+약간)는 의견은 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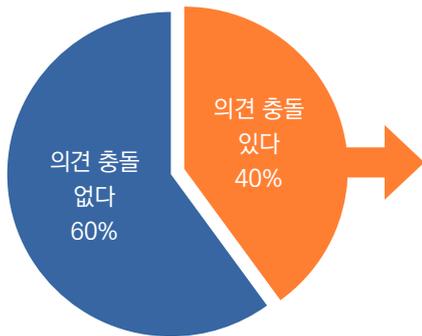
[그림] 담임목사와 관계 (시무장로, %)



◎ 장로 10명 중 4명,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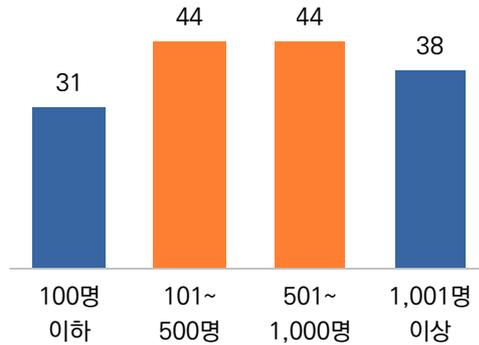
- ▶ 시무장로들에게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와의 의견 충돌 정도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의견 충돌이 있다'(자주+가끔) 40%, '의견 충돌이 없다' 60%로 응답해 장로 10명 중 4명은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회 규모별로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보다는 101~1,000명 규모의 중형교회에서 장로와 담임목사 간의 의견 충돌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정도 (시무장로, '자주+가끔' 비율*)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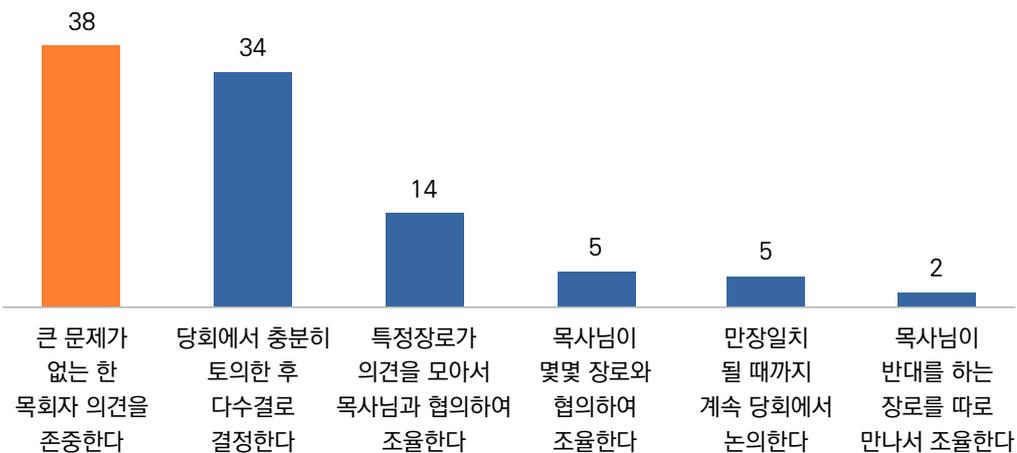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있는 비율 (시무장로, '자주+가끔' 비율*, %)



◎ 장로와 담임목사 간 의견 충돌 시 '담임목사 의견 존중' 38%에 그쳐!

- ▶ 담임목사와의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더니 '큰 문제가 없는 한 목회자 의견을 존중한다'가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후 다수결로 결정한다' 34%, '특정 장로가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과 협의하여 조율한다'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의견 충돌 발생시 목회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는 10명 중 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회 차원 또는 대표 장로의 영향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50%가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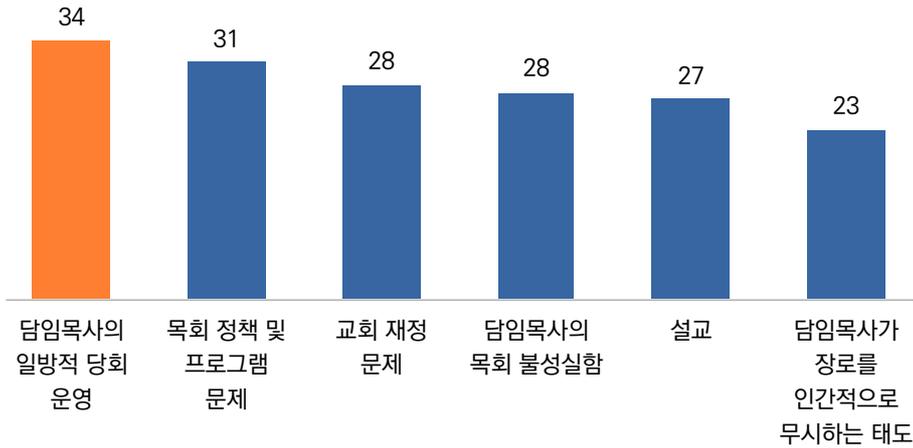
[그림]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시 해결방법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있다고 응답한 시무장로, 상위 6위, %)



◎ 담임목사와의 갈등, ‘담임목사의 일방적 당회 운영’ 때문 34%

- ▶ 담임목사와 장로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어떤 문제로 담임목사와 갈등이 생기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장로 3명 중 1명 정도(34%)는 ‘담임목사의 일방적 당회 운영’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목회 정책 및 프로그램 문제’ 31%, ‘교회 재정 문제’ 28% 등의 순이었다.
- ▶ ‘담임목사의 목회 불성실함’(28%)과 ‘설교’(27%) 등 목회적 영역을 꼽은 비율도 4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담임목사와 장로의 갈등 이유 (갈등 있는 시무장로, 1+2순위, 상위 6위, %)



04

[장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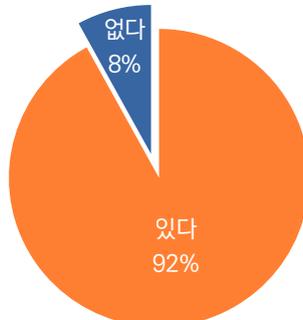
장로 10명 중 9명, 장로에게 필요한 교육 받을 의향 있다!

- ▶ 시무장로에게 장로 임직 후 교육 이수 여부를 물은 결과, 교육 경험률이 68%, 3명 중 2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로에게 필요한 교육을 한다면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92%가 ‘있다’고 응답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 받고 싶은 교육으로는 ‘장로의 자세 및 직분 수행 교육’이 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세대 전략’(43%), ‘한국교회의 현황과 흐름 및 전망’(33%), ‘성도 상담 및 심방 방법’(33%)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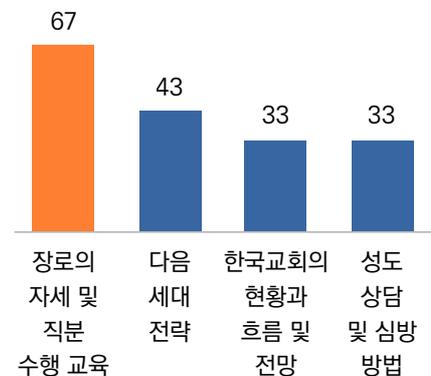
[그림] 장로 임직 후 교육 이수 여부 (시무장로)



[그림] 장로 교육 받을 의향 (시무장로)



[그림] 받고 싶은 교육 (의향 있는 시무장로, 1+2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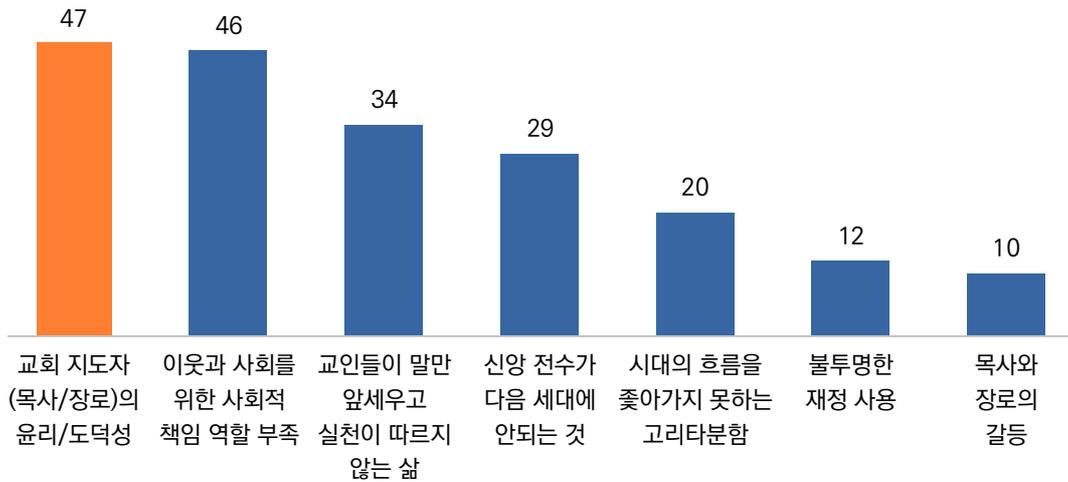
05

[한국교회 전망 인식]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 '교회 지도자의 윤리/도덕성' 47%!

- ▶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로들에게 묻은 결과, '교회 지도자(목사/장로)의 윤리/도덕성'(47%)과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부족'(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 ▶ 이 외에 '교인들이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삶', '신앙 전수가 다음 세대에 안 되는 것'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한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윤리적 자질 부족'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 부족'은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와 역할이어서 한국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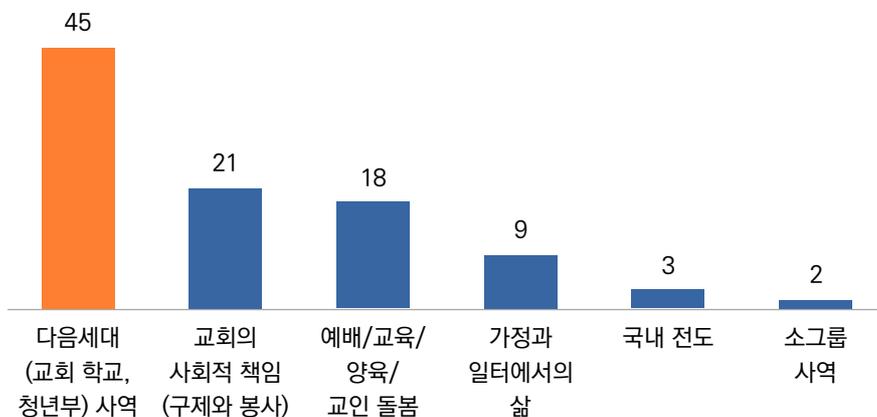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 문제점 (장로, 1+2순위, 상위 7위, %)



◎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다음세대 사역'!

- ▶ 장로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 '다음세대(교회학교, 청년부 사역)'가 절반 가까이(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21%, '예배/교육/양육/교인 돌봄' 18% 등의 순이었다. 다음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항목 대비 최소 2배 이상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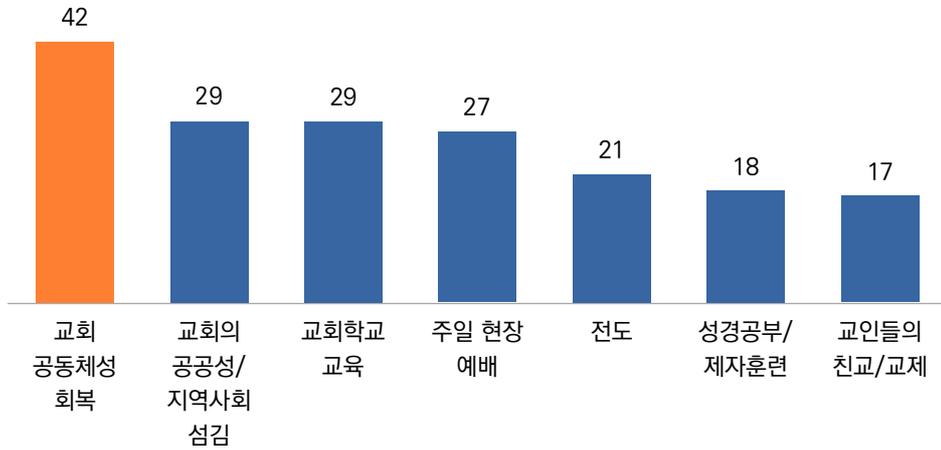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가 향후 집중해야 할 분야 (장로, 1+2순위, 상위 6위, %)



◎ 출석교회 중점 사항, ‘교회 공동체성 회복’ 가장 많아!

- ▶ 섬기는 교회의 올해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2%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회의 공공성/지역사회 섬김’(29%), ‘교회학교 교육’(29%), ‘주일 현장 예배’(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의 올해 중점 사항 (장로, 1+2순위, 상위 7위, %)



시사점

장로는 교회의 리더이다.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희생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리더십 종류 가운데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성원들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지도력'을 말한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일의 성과이다.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명령과 규율보다는 신뢰와 존중으로 대할 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교회 리더십의 목적은 조직체로서의 교회 발전, 교회 성장, 교회 성숙이 아니다. 교회 리더십의 목적은 교인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사역 목적은 개인으로서의 교회와 조직으로서의 교회 모두를 포함한다는 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장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로직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비율이 65%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주변 장로를 평가하는 질문에 '교회 예배/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장로'(92%),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장로'(91%), '자기희생적으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84%)가 있다는 응답이 80%를 훨씬 넘었다는 결과가 장로가 직분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장로에게서 긍정적인 면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부정적 요소는 권위적인 측면이다. '장로가 되고 나서 권위적으로 된 장로'들이 있으며(71%) 이들이 권위적으로 되는 것은 '장로를 계급으로 여기기 때문'(71%)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권위적인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77%)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장로가 교인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는 데서도 드러난다. 당회가 어떤 정책에 대해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또는 최소한의 설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그 당회, 특히 장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성도들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장로의 본분에 가까운 일이다.

둘째는 담임목사와의 갈등 문제이다. 조사에 응한 장로 가운데 40%는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이 있다고 응답해서 당회 내의 의견 충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충돌이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담임목사의 일방적 당회 운영'(34%)과 '목회 정책 및 프로그램 문제'(31%)이다.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 또는 목회 정책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다. 흔히 장로는 목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말들을 한다. 그러나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직분이 아니다. 견제라는 것을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조언하고 충고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견제는 장로와 목사 상대방이 아니라 당회 구성원 모두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회를 목사 대 장로의 대립 구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당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되 개방된 자세로 임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양보하는 자세를 가질 때 당회가 보다 효율적이 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

셋째는 장로의 직분을 주로 '권한' 중심으로 인식하고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장로들은 당회 원으로서 교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 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역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을 장로의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은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목사는 목양, 장로는 행정이라고 역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목양과 행정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목양이고 목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행정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행정이 뒷받침 안 되는 목양은 비효율성을 드러낼 뿐이고 목양이 뒷받침 안 되는 행정은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장로직을 '권한'(정책 결정권, 사역 책임권)으로 생각하는데 앞서서 '섬김' 즉 성도들을 돌보는 것과 상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로는 섬기며 희생하는 직분이지만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장로직을 수행할 때 성육신으로 오시고 희생하신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